

늘어나는 독거노인... 지자체 안부 챙기기 분주

■ 전남 홀로사는 노인 인구 현황

※ 2017년 6월말 기준 (명,%)

시군	전체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독거노인수	비율
합계	1,898,065	404,673	21.3	125,391	31.0
목포	235,516	33,230	14.1	10,096	30.4
여수	287,607	47,693	16.6	9,874	20.7
순천	280,233	38,937	13.9	10,552	27.1
나주	108,393	23,928	22.1	8,536	35.7
광양	152,647	17,319	11.3	4,806	27.7
담양	47,366	13,508	28.5	3,027	22.4
곡성	30,365	10,020	33.0	3,566	35.6
구례	27,102	8,334	30.8	2,588	31.1
고흥	67,217	25,551	38.0	9,272	36.3
보성	44,076	15,369	34.9	5,735	37.3
화순	65,015	15,710	24.2	5,218	33.2
장흥	40,008	12,615	31.5	4,646	36.8
강진	37,251	11,742	31.5	4,279	36.4
해남	74,257	21,714	29.2	7,642	35.2
영암	56,310	13,705	24.3	4,829	35.2
무안	82,544	16,444	19.9	5,318	32.3
함평	34,401	11,392	33.1	4,229	37.1
영광	55,149	14,918	27.1	4,982	33.4
장성	45,825	12,692	27.7	4,166	32.8
완도	52,395	15,716	30.0	5,319	33.8
진도	31,937	10,193	31.9	2,645	25.9
신안	42,451	13,943	32.8	4,066	29.2

전남 시·군 홀로노인 30% 넘어

안부전화에 요구르트 배달

응급안전 감지센서 설치 등

돌봄 서비스 앞다퉀 추진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5%(40만8451명)로, 전년도(21.0%)보다 높아졌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 건강·안전을 살피는 정책은 전남 시·군들이 펼치는 핵심 사업들로, 올해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살펴보고 안부전화는 기본=자녀들 대신, 지역 노인들의 안부를 자치단체가 챙겨주는 것은 전남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된 지 오래다.

무안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647명. 이들 중 홀로사는 노인은 5366명으로 32.6%에 달한다.

영광도 1만4918명 중 4982명이 독거노인으로 33.4%나 된다. 전년도(4445명·30.1%)에 견줘 3.3%포인트나 늘어났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안군과 영광군 등은 올해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한다.

자녀들 대신, 생활관리사들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주일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1주일에 한 번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는 서비스다.

무안군은 65세 이상 노인 11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영광군은 1220명의 노인들을 선정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한다.

◇안부문은 요구르트·두유배달=독거노인 가정으로 매주 한 차례 요구르트와 두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두유 배달' 서비스가 무안·영광 등에서 펼쳐진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배달'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된 유제품이 방치됐을 경우 배달원이 가족이나 유관기관에 통보,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영광군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1391명을 대상으로, 무안군의 경우 독거노인 230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

◇감지센서로 비상상황 대처=영광군

은 13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안군도 15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서비스를 펼친다.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 집에 감지센서를 부착, 화재·가스사고가 발생하거나 일정기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무안군은 올해 3억6300만원을 들여 관련 장비 1100대를 교체하는 등 서비스 효율성을 높인다.

◇홀로사는 노인 늘고 복지비도 늘고=홀로사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2만1462명(30.4%)이던 독거노인은 지난해 6월 말 12만5391명(31.0%)으로 늘어났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을 비롯, 관련 복지비도 증가했다. 무안군은 '2018 독거노인보호 종합대책'을 위해 17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영광군도 노인돌봄 서비스(5700만), 노인안부살피기(2800만) 2개 사업에만 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신안 해역으로 밀려든 모자반.

〈신안군 제공〉

강풍에 신안 해안가 모자반 1700t 유입

郡, 처리비 7억8500만원 긴급 배정·경로 분석 나서

'바다 불청객' 모자반이 신안 해역으로 밀려들면서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불어닥친 강풍으로 신안 모든 해역에 모자반 1700t가량이 유입됐다.

모자반이 해안가로 흘러들면서 대표적 관광지를 오염시키고 양식시설에 들러붙어 피해를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안군 설명이다.

신안군은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예산 7억8500만원을 긴급 배정하는 등 모자반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모자반 발생 원인과 경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식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사가 끝나고 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법에 따라 복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신안군은 2015년에도 예산 17억원을 투입해 모자반 1800여t을 처리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임자도에 'KT 드론 교육장' 오픈

임자도에 드론 교육장이 만들어졌다.

18일 KT에 따르면 KT는 지난 16일 신안군 임자도에 'KT 기가 아일랜드 드론 교육장'을 오픈하고 임자도민을 비롯한 신안군민을 위해 드론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드론교육장은 임자도 마을기업인 '임자만났네' 체험센터 옥상에 조성됐고 이론 학습장, 실기 체험장, 시뮬레이션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KT는 드론 교육장에서 이론, 조종 실습은 물론 향후 드론 자격 검정과 농업용 드론 임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임자도는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약 살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업용 드론은 가격이 무인헬기 10~25% 수준에 연간 운용비도 무인헬기 10%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교육장에서는 농업용뿐 아니라 일반인, 학생 대상 드론 교육도 진행될 예정으로, 드론 특성과 학교로 지정된 신안 임자남초교 학생들 반응도 폭발적이라는 게 KT 설명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함평군 올 인구정책 '작년 인구 지키기'

함평군의 올해 인구정책은 지난해 말 인구(3만4328명)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매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다보니 자연 감소 인원만 300명 가까이되는 만큼 전입자를 유도,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함평의 경우 지난해 출생자(164명)보다 사망자(457명)가 293명 많은 것을 비롯, 2013년 241명, 2015년 255명, 2016년

261명 등 매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함평군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달부터 전 직원들이 1인당 2명씩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입장려금 10만원과 쓰레기 봉투 지급,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시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영광군은 대마산단 입주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대마산단 입주업체 애로사항 청취

최저임금 지원 등 설명

영광군이 대마산단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산단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대마면사무소와 대마산단 입주 업체들의 간담회를 갖고 15개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광군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신청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마면사무소 관계자는 "대마산단 입주 업체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 산단 운영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매니페스토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정책 선거를 다짐했다. 〈영광군의회 제공〉

영광군의회 매니페스토 실천 결의대회

공정한 지방선거 다짐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들은 지난 16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책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품선거, 비방, 흑색선전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과 자신들의 공약을 꼭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강필구 의장은 "의원 모두가 정책 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에서 지역 발전이 시작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선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기자 jylee@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